

왜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19/2023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과 원주민 왓파노악 부족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2개월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메사츄세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매서운 겨울 추위였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기까지 거의 절반이 죽어가며 견디고 있었지만 여전히 굶주림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왓파노악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에게 옥수수과 밀의 종자를 주었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사냥한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얻으며 청교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수확의 기쁨을 원주민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빵이 지금도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전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을 도운 원주민 부족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아메리카에 세워지고, 서부 개척 시대가 도래하며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잔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비인간적인 살상들이 있었지만, 1830년 인디언 추방법이 제정된 후 본격화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잔혹사는 서부 개척 시대라는 미명 하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추수감사절은 이민 온 유럽 백인들만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게 된 핵심이었던 원주민들은 사라진 채 말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인이 되면 바로 이런 오류와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에서 비롯된 것임도 모른 채 잘못된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살전 5:18)이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